

□ 고등부:수능 국어 · 논술 그룹/개인 교습

☆ 영통 늘푸른 학원 출강 & 권선동 황샘 국어 논술

□ 중등부:언어 사고력 & 독해 원리

황샘국어 010-4128-0314

[인문 적용1] 신화적 상상력의 구성원리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가) 인간의 사유는 특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다른 것과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때 기준은 당연히 현실 세계의 실제 경험과 인식이 그 근간을 이룬다. 하지만 인간은 현실적 경험으로 인식되지 않는 대상을 사유하기도 하는데, 그중 하나가 신화적 사유이며, 이는 상상력의 산물이다.

소단원 핵심 내용 : 인간 사유의 기준(상상력의 산물로서의 신화적 사유)

소단원 세부 내용 : 기준① - 실제 세계의 경험과 인식

기준② - 현실적 경험으로 인식되지 않는 대상(신화적 사유)

(나) 상상력은 통념상 현실과 대립되는 위치에 속한다. 또한 현대 문명에서 상상력은 과학적·합리적 사고와 반대되는 사유체계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러나 신화적사유를 떠받치고있는 상상력은 '현실적-비현실적', '논리적-비논리적', '합리적-비합리적'등과 같은 단순한 양항 체계속으로 환원될 수 없다.

소단원 핵심 내용 : 상상력에 대한 통념(오해)과 해명(상상력에 대한 통념적 인식과 신화적 상상력의 특성)

소단원 세부 내용 :

통념-과학적, 합리적 사유와 반대되는 사유 체계, 논리적, 합리적 체계와 대립

해명-신화적 상상력은 통념적 양항체계로 환원될 수 없다.

(다) 초기 인류학에서는 근대 문명과 대비시켜 신화적 사유를 미개한 존재들의 미숙한 단계의 사고로 간주했었다. 이러한 입장을 대표하는 레비브뤼에 따르면 미개인은 논리 이전의 사고방식과 비현실적 감각을 가진 존재이다. 그러나 신화 연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레비스트로스의 논의에 따르면 미개인과 문명인의 사고방식은 사물을 분류하는 방식과 주된 관심 영역 등이 다를 뿐,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그것은 세계를 이해하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방식 혹은 태도일 뿐이다. 신화적 사유를 비롯한 이른바 미개인의 사고방식을 가리키는 레비스트로스가 말하는 '야생의 사고'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근대인 혹은 문명인 못지않게 질서와 체계에 민감하고 나름의 현실적, 논리적, 합리적 기반을 가지고 있음을 함축하고 있는 개념이다.

소단원 핵심 내용 : 신화적 상상력에 대한 초기 초기관점과 최근의 관점(레비스트로스의 관점에서 본 신화적 상상력)

소단원 세부 내용 :

초기 관점(레비브뤼) : 미개한 존재들의 미숙한 사고 체계, 논리 이전의 사고 방식이며 비현실적 감각

최근관점(레비스트로스):문명인 못지 않은 질서와 체계와 질서에 민감한 사고 체계, 나름대로의 현실적, 논리적, 합리적 기반을 가지고 있음을 함축하는 개념=>문명인(근대인)의 방식과 분류방식, 주된 영역의 차이가 있을 뿐 합리성 정도를 따질 수 없다.

(라) 레비스트로스의 '야생의 사고'는 신화시대와 신화적 사유를 근대적 문명에 입각한 발전론적 시각이 아닌 상대주의적 시각으로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그가 신화 자체의 사유방식이나 특성을 특정 시대의 것으로 한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과거 신화시대에 생겨난 신화적 사유는 신화가 재현되고 재생되는 한 여전히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현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단원 핵심 내용 : 레비스트로스 견해의 의미와 한계

소단원 세부 내용 :

견해의 의미 : 상대주의적 시각에서 신화와 신화적 사유를 파악

한계 : 신화적 사유를 특정 시대, 특정 공간의 것으로 한정하는 오류

(마) 이장에서 보듯이 신화적 사유는 현실적·경험적 차원의 '진실'이나 '비진실'로 구분될 수 없다. 신화는 허구적이거나 진실한 것 모두를 '재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재료들은 신화적 사유 고유의 규칙과 체계에 따라 배열된다. 그러므로 신화 텍스트에서 이러한 재료들의 구성 원리를 밝히는 것은 그 신화에 반영된 신화적 사유체계를 밝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신화를 공유하고 전승해 왔던 집단의 원형적 사유 체계에 접근하는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소단원 핵심 내용 : 신화적 텍스트의 재료들의 구성 원리를 밝히는 것의 의의

소단원 세부 내용 :

신화에서 재료의 이용 : 현실적, 비현실적인 것을 모두 사용하며 신화적 사유 고유의 규칙과 체계에 따른 재배열

재료들의 구성원리를 밝히는 것의 의의-신화에 반영된 신화적 사유체계를 밝히는 것/신화를 공유하는 집단의 원형적 사유 체계에 접근하는 것

1. 제재 : 신화적 상상력의 구성원리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2. 내용전개 : 개념 및 통념 제시→통념에 대한 해명→연구의 의미
3. 핵심 개념어의 의미
 - ◆ 신화적 상상력의 재료 : 현실 경험과 허구적인 것 모두
 - ◆ 신화적 사유의 개념(레비스트로스) : 사유의 재료들을 그들 고유 체계의 규칙과 체계에 따라 논리적, 합리적 사유 체계로 재배열한 것으로 양항 체계로 환원할 수 없다.
 - ◆ 레비스트로스의 개념과 최근 개념의 차이 : 레비스트로스는 사유 체계가 시공간의 한계 지닌다고 생각, 그러나 최근 개념은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생각함.
4. Tip : 신화적 상상력의 재료 : 신화나 이야기를 구성하는 구성 요인이거나 소재는 모두 상상력의 재료로 볼 수 있다.

[인문적용2] 지식의 정당화 조건이 갖추어야 할 두 가지 조건

우리는 어떤 경우에 '안다'고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지식의 기준에 관한 것으로서, 곧 우리가 어떤 것을 안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 무엇인가에 관한 물음이기도 하다. 이러한 질문을 가장 먼저 제기했던 플라톤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명제 P에 대해 P가 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P가 참이며, 그 사람이 P가 참이라고 생각할 만한 정당한 근거를 모두 지니고 있어야 P를 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플라톤의 생각은 그 이후 많은 철학자들에 의해 타당한 것으로 인정(認定)되어 왔다.

소단원 핵심 내용 : '안다'고 할 수 있는 정당화의 조건

소단원 세부 내용 :

'안다'고 할 수 있는 기준-① 참이라고 생각해야 하며(믿음), ② 실제로 참이며(사실) ③(정당한 근거를 지녀야 한다.(관련성)

그런데 P가 참이라고 생각할 만한 정당한 근거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정당화 조건에 관해서는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의문은 정당화가 반드시 단 한 번으로 끝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제기되는 것이다. 누군가 명제 P가 참이라고 믿을 때, 그는 믿음을 뒷받침할 근거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근거는 그것이 참임을 뒷받침할 또 다른 참인 근거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근거를 요구(要求)하다가는 결국 어떤 지식도 얻을 수 없게 된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스스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 다른 어떤 지식에 의해서도 정당화될 필요가 없는 이런 지식을 '기초적 지식'이라고 한다. 첫째 의문은 어떤 명제가 기초적인 지식을 담은 명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두 번째 의문은 지식을 정당화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활용할지에 대한 것이다. 이는 한 명제가 다른 명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명제들 간에 어떤 관계가 성립(成立)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인 것이다. 이와 같은 지식의 정당화 조건에 관한 두 의문은 근대 인식론에서 가장 중요한 탐구 대상이었다. 이성론과 경험론의 심각한 대립은 이 두 의문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소단원 핵심 내용 : 지식의 '정당화'의 조건에 대한 두 가지 의문

소단원 세부 내용 :

의문점①-정당화할 필요가 없는 기초적 지식은 무엇인가?

의문점②-지식을 정당화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활용해야 하는가?

근대 이성론에 기초를 제공한 데카르트는 지식의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하학에서 쓰이는 연역법에 주목(注目)하였다. 연역법이란 일반적 사실이나 원리를 전제로 하여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를 결론으로 이끌어 내는 추리 방법이다. 어떤 참인 명제, 즉 참인 전제로부터 연역적으로 타당하게 추론되었다면 그 결론이 되는 명제 역시 전제와 같이 지식으로서의 정당성을 갖게 된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연역의 전제가 되는 '기초적 지식'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데카르트는 지식이 인간의 정신의 내용물인 관념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념을 외부 대상을 감각에 의해 경험함으로써 얻게 되는 외래(外來) 관념'과, 경험과는 무

관하게 이성의 능력으로부터 유래하는 ‘본유(本有) 관념’으로 구분하였다. **외래 관념**은 경험에 의해 획득된 것이므로 그 대상이 지닌 본래 모습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 **본유 관념을 직관함으로써 얻어지는 명제**는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것이므로 ‘기초적 지식’으로서 지식을 정당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소단원 핵심 내용 : 근대 이성론의 관점에서 본 정당화의 방법과 기초적 지식

소단원 세부 내용 :

정당화의 방법-연역법

기초적 지식-본유관념을 직관함으로써 얻어지는 명제

경험론자인 로크는 모든 지식은 궁극적으로 관념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 대하여는 데카르트와 의견을 같이했지만, 지식의 토대가 되는 관념의 종류에 관해서는 의견이 달랐다. 로크는 경험과 무관한 본유 관념이 있다는 생각을 거부하면서 **인간의 정신**은 원래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흰 종이와 같은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백지 상태의 정신은 경험에 의해 관념이라는 내용물이 채워진다. **이처럼 경험론에서는 모든 지식은 경험을 토대로 한 관념에 대한 지각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보았고, 지식에 대한 정당화 방법으로 귀납추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험에서 획득한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들을 전제로 하여 일반적인 사실이나 원리로서의 결론을 도출(導出)하려 한 것이다.

소단원 핵심 내용 : 근대 경험론의 관점에서 본 정당화의 방법과 기초적 지식

소단원 세부 내용 :

정당화의 방법-귀납법

기초적 지식-경험을 토대로 한 관념에 대한 지식

1. 제재 : 지식의 정당화 조건이 갖추어야 할 두 가지 조건
2. 내용전개 : ‘안다’의 의미→문제가 되는 부분 제시→문제에 대한 철학적 해명(데카르트와 로크)
3. 핵심 개념어의 의미
 - ◆ ‘안다’의 의미-①②③
 - ◆ 기초적 지식-어떤 지식에 의해서도 정당화될 필요가 없는 이런 지식
 - ◆ 연역법-일반적 사실이나 원리를 전제로 하여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를 결론으로 이끌어 내는 추리 방법
 - ◆ 관념-정신의 내용물
 - ◆ 외래관념-외부 대상을 감각에 의해 경험함으로써 얻게 되는 지식
 - ◆ 본유관념-경험과는 무관하게 이성의 능력으로부터 유래하는 지식
 - ◆ 귀납법-경험에서 획득한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들을 전제로 하여 일반적인 사실이나 원리로서의 결론을 도출(導出)하는 추리 방법
4. Tip : 지식의 정당화 조건 ① 참이라고 생각해야 하며(믿음), ② 실제로 참이며(사실) ③(정당한 근거를 지녀야 한다.(관련성))

[인문심화1] 벤다이어그램을 이용한 정언 명제의 타당성 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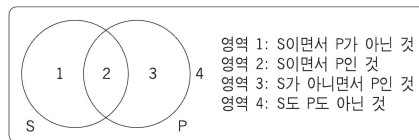
모든 사과는 알칼리성이 강한 과일이다.' 혹은 '어떤 사과는 알칼리성이 강한 과일이다.'와 같이 주어와 술어, 두 단어(개념, 집합 혹은 범주)의 포함과 배제 관계를 서술하는 명제를 '정언 명제'라 한다. 그리고 '모든 사과는 알칼리성이 강한 과일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과는 알칼리성이 강한 과일이다.'에서처럼 정언 명제로 이루어진 논리 체계를 '정언 논리'라고 한다. 그런데 이 정언 논리의 타당성 여부를 19세기 논리학자인 벤이 제시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면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소단원 핵심 내용 : 정언 명제와 정언 논리의 개념

소단원 세부 내용 :

정언 명제-주어와 술어, 두 단어의 포함과 배제 관계를 서술하는 명제

정언 논리-정언 명제로 이루어진 논리 체계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정언 논리의 타당성을 입증하려면 우선 정언 명제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정언 명제의 벤 다이어그램은 겹치는 부분이 있는 두 원으로 되어 있다. 보통 왼쪽의 원은 주어 집합 'S'를, 오른쪽의 원은 술어 집합 'P'를 가리킨다. 벤 다이어그램은 옆의 그림처럼 네 영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에다 다음 세 가지 사항을 표시한다. 첫째, '어떤 영역에 아무 것도 없다'라는 내용의 경우, 즉 원소가 없는 부분은 '빗금'으로 나타낸다. 둘째, '어떤 영역에 적어도 하나는 있다'라는 내용의 경우, 즉 원소가 있는 부분은 '⊗'로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어떤 영역에 적어도 하나가 있는지 아무것도 없는지 알 수 없다'라는 내용의 경우, 즉 원소가 있고 없음을 모르는 부분은 '표식 없이 빈 채'로 둔다.

소단원 핵심 내용 : 벤다이어그램을 읽는 방법/표시 방법

소단원 세부 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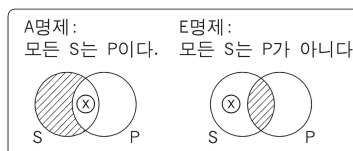
왼쪽의 원-주어 집합 S를 의미

오른쪽의 원-술어 집합 P를 의미

빗금-아무것도 없음

⊗-적어도 원소가 하나는 있다.

빈 곳-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정언 명제는 A, E, I, O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논리의 편의상 정언 명제의 주어 집합 S에서 논의되는 범위가 '모든'일 경우 주어 집합의 원소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A명제'와 'E명제'는 왼쪽의 벤다이어그램처럼 나타낼 수 있다. 우선, 'A명제'는 만약 어떤 것이 S에 속한다면 그것은 P에 속한다는 내용으로, S

의 원소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S이면서 P가 아닌 영역1에는 빗금이, 영역2에는 ㉘가 표시된다. 'E명제'는 만약 어떤 것이 S에 속한다면 그것은 P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S의 원소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S이면서 P인 영역 2에는 빗금이, 영역 1에는 ㉘가 표시된다.

소단원 핵심 내용 : 주어 집합'모든'의 정언 명제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유형

소단원 세부 내용 :

A명제-모든 S는 P이다.(원소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지만, ①영역은 비어 있으며, ②는 적어도 하나의 원소가 존재, ③은 원소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

※ ③의 의미:S의 원소는 아니지만 P에 속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이 명제에서 논의 대상이 아니다.

E명제-모든 S는 P가 아니다. (원소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며 ①은 적어도 하나는 존재, ②는 비어 있으며 ③은 원소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

한편 정언 명제의 주어 집합 S에서 논의되는 범위가 '어떤'일 경우, 'I명제'와 'O명제'는 오른 쪽의 벤다이어그램처럼 나타낼 수 있다. 'I명제'는 S의 원소가 적어도 하나 있고 그것이 또한 P에 속한다는 내용으로, S이면서 P인 것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S이면서 P인 영역, 즉 영역 2가 ㉘로 표시된다. 마지막으로'O명제'는 S의 원소가 적어도 하나 있고 그것은 P에 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S이면서 P 아닌 것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S이면서 P가 아닌 영역, 즉 영역 1이 ㉘로 표시된다.

소단원 핵심 내용 : 주어 집합'어떤'의 정언 명제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유형

소단원 세부 내용 :

I명제-어떤 S는 P이다. (S이면서 Pdls 것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며, ①은 원소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으며, ②는 적어도 하나가 존재하고, ③은 원소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다.

O명제-어떤 S는 P가 아니다.(①은 적어도 하나가 있으며, ②③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하여 '모든 사과는 알칼리성이 강한 과일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과를 알칼리성이 강한 과일이다.'라는 논증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자. '사과'를 'S'라하고, '알칼리성이 강한 과일'을 'P'라고 한다면, 이 논증의 전제는 '모든 S는 P이다'라는 A명제이고, 결론은 '어떤 S는 P이다'라는 I명제로 이루어져 있다. 위의 벤 다이어그램으로 볼 때, 결론 I명제는 영역 2, 즉 S와 P가 겹치는 부분에 '어떤 것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전제 A명제에도 영역 2에 어떤 것이 적어도 하나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전제가 결론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논증은 타당하다.

소단원 핵심 내용 : 사례를 통하여 정언 명제의 타당성 검토

소단원 세부 내용 :

A 명제-모든 사과는 알칼리성이 강한 과일이다. (영역 ①은 비어 있으며, ②에 적어도 하

나의 원소가 존재)

I 명제-어떤 사과는 알칼리성이 강한 과일이다.(영역 ②에 적어도 하나의 원소가 존재)

→ 두 진술 모두 영역 ②에 대하여 적어도 하나가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하므로 이 논증은 타당하다.

1. 제재 : 정언 명제의 타당성 검증 방법

2. 내용전개 : 정의→표시 방법→타당성 검증의 방법을 나누어 설명→구체적 사례 제시

3. 핵심 개념어의 의미

- 정언 명제-주어와 술어, 두 단어의 포함과 배제 관계를 서술하는 명제
- 정언 논리-정언 명제로 이루어진 논리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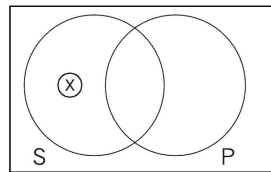
4. Tip- 명제의 증명 과정

- A 명제:모든 'S'는 'P'이다.

(원소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며,) ①영역은 비어 있으며, ②는 적어도 하나의 원소가 존재, ③은 원소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

- I 명제:어떤 'S'는 'P'이다. (S이면서 P인 원소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며,) ①은 원소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으며, ②는 적어도 하나가 존재하고, ③은 원소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다.
- 따라서 일치되는 부분 ②에 대하여 A 명제가 타당하다면, I 명제는 타당하다.

5. Tip-O 명제의 밴다이어그램 : 어떤 S는 P가 아니다.



- ① 영역에 적어도 하나의 원소가 존재하며,
- ② 영역에는 원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 ③ 영역 또한 원소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인문심화2] 나일강의 치수와 파라오의 신격화와의 관계

나일강은 이집트인들의 젖줄이었지만, 변덕스런 강이기도 하였다. 때때로 지나치게 범람하여 이집트인들의 재산을 휩쓸어 버리는가 하면 주변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없을 정도로 수위가 낮아져 굶주림에 시달리게도 하였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강을 보면서 통일 이전 각 지역의 통치자들은 이를 인공적으로 다스리고자 하는 욕망을 품었으나, 그들이 관리하는 지역 단위의 관개 체계는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안정적인 수확을 기대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각 지역의 통치자들에 대한 백성들의 불만이 확산되었고, 이것이 이집트가 정치적으로 통일되는 데 큰 자극을 주었다. 통일 직후부터 파라오*들이 강가에 제방을 쌓아 홍수가 났을 때 마을이나 경작지로 범람한 강물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것을 막고, 경작지 안에 저수지를 만들어 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가뭄 때 주변의 경작지에 공급하는 국가적인 차원의 관개사업에 총력을 기울였던 점이 그 방증(傍證)*이다.

소단원 핵심 내용 : 지역적인 나일강 치수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정치적 통일

소단원 세부 내용

-나일강에 대한 지역적 관개 체계는 비효율적이어서 안정적 수확을 기대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정치적 통일을 하는 데 자극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관개사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정기적으로 나일강이 범람하는 시기를 피해서 빠른 시간 내에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체계적으로 일해야만 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모든 결정은 결국 강압적인 통치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이집트의 통치 형태가 권위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집트에서는 실질적인 필요에 따라 중앙 집권적(集權的)인 전제 정치(專制政治)가 대두되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관개사업이 힘들었지만, 통치자의 명령에 따른 결과 백성들에게는 안전과 풍요가 보장되었으므로, 다음에 진행되는 더 힘든 사업에도 백성들은 순순히 응하였을 것이다. 이런 관개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농업 생산량의 확대로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왕권의 집행 기관인 관료 제도도 발달하게 되었다. 농업 이외의 산업이 나타나고 이집트의 국토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귀족이 주축이 된 관료들은 파라오의 통치를 보좌하며, 그 대가로 넓은 토지를 하사받아 지배 계층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소단원 핵심 내용 : 나일강에 대한 중앙집권적 치수가 이집트 정치 경제에 끼친 영향

소단원 세부 내용

나일강에 대한 치수는 수많은 인력 동원 및 체계적인 수행이 필요→중앙집권적, 전제 정치 대두→농업 생산량의 증대→경제의 발달→중앙집권적 관료 제도 발달-귀족이 주축이 되어 지배계층을 형성하게 됨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파라오는 그의 권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을 필요로 하였다. 범람의 수위를 예측하는 능력은 그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였다. 나일강의 수위 측정은

평평한 바위에 일련의 수평 눈금을 표시해 둔 원시적인 수위계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 수위 측정 정보를 통해 물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가능하였다. 수위계를 사용한 이후로 파라오는 자연의 힘을 미리 알고 이에 대비하는 신성한 능력을 지닌 지배자로 인식되었고, 마침내 이집트 세계를 창조한 신의 화신으로까지 간주되었다.

소단원 핵심 내용 : 나일강에 대한 수위 측정 능력과 더불어 신의 화신으로 오른 파라오

소단원 세부 내용

원시적 수위계를 이용하여 나일강의 수위를 측정함으로써 사전 대비가 가능해짐→파라오는 신성한 능력을 지닌 지배자로 인식됨→신의 화신으로 간주됨

파라오의 권한이 나일강의 치수(治水)로부터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는 전통적으로 파라오의 대관식도 나일강의 범람이 시작될 무렵을 골라 장엄하고 호화롭게 거행되었다. 새로운 파라오가 등극하면 신들이 이 땅을 지배하던 당시의 우주가 새롭게 창조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파라오는 왕좌에 있는 동안 태양신인 호루스로 여겨졌고, 죽으면 죽은 자의 왕인 오시리스와 동일시되고, 그의 아들이 새로운 호루스가 되어 통치하였다. 즉 파라오는 인간으로 구현된 신이 되었던 것이다.

소단원 핵심 내용 : (나일강에 대한 치수의 결과로) 권한이 확대된 왕의 권한과 신격화

소단원 세부 내용

권한이 확대된 왕의 권한-대관신을 나일강변에서 장엄하고 호화롭게 거행, 파라오의 등극을 우주가 새롭게 창조되는 것으로 간주
신격화-파라오는 생전에는 태양신인 호루스로 여겨졌으며, 죽으면 오시리스와 동일시

* 파라오: 고대 이집트의 왕을 이르던 말.

* 방증(傍證):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되지는 않지만, 주변의 상황을 밝힘으로써 간접적으로 증명에 도움을 줌. 또는 그 증거.

1. 제재:나일강의 치수와 파라오의 신격화

2. 내용전개: 이집트의 왕이 신격화되는 과정을 나일강에 대한 치수 능력과 관련지어 인과적으로 서술함